

유럽인들 사로잡은 "BTS도 먹은 달고나커피, 멈출 수가 없어요"

한국발 '격리 커피'로 인기 물이, 인스타그램 39만개 해외 언론도 잇달아 보도... "한국 길거리 과자 딴 이름"

"도와주세요! 달고나 커피 마시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지난 24일 스웨덴 최대 일간지 다겐스니 헤테에 난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 문화부

기자인 그레타 투르피엘은 직접 이 커피를 만들어 마셔보곤 "한국에서 온 이 최신 트렌드 커피는 격리에 적합하다"며 "다른 즐거움이 없을 때, 카페인은 유혹적인 약이 된다, 만약 카페인이 맞지 않더라도 이 커피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한국의 달고나커피가 '격리 커피'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고 있다. K팝곡놀이, K푸드도 불리는 달고나커피는 인스턴트커피에 설탕과 뜨거운 물을 붓고 400번 이상을 휘저어서 만드는 커피. 소셜미디어 용으로 사진 찍기도 예쁘고, 수백번 젓다 보면 시간 보내기 좋을 뿐 아니라, 맛도 달달해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잊게 해준

Resten av allt är vårt, del 23 av 24

● Vårföljetong i DN 2020: Emma Hambergs "Resten av allt är vårt" (Piratförlaget). Alla delar finns här.

Tommy Körberg frisk från covid-19

● Tommy Körberg har återhämtat sig efter att ha insjuknat i covid-19 i början av mars. - Jag tror inte att jag varit så sjuk sedan jag hade...



Lars Kleberg: Den ryska författarkanon enligt mätstickan



"Hjälp, jag kan inte sluta dricka dalgonakaffe"

● Greta Thurffell: Den senaste kaffetrenden lämpar sig ovanligt väl för karantänen.

다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것이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달고나커피' 게시물 수는 39만 2000개. 유튜브 관련 콘텐츠 조회 수, 구글 검색량도 네 자리 수 단위로 증가했다.

워싱턴포스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LA타임스는 "운동한다는 기분으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잡지 보그 러시아판은 "토피(끈적한 캐러멜 과자) 같은 한국 길거리 과자의 이름을 딴

커피"라고 유래를 설명했다. 달고나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에는 방탄소년단(BTS), 엑소의 세훈, 슈퍼주니어의 규현, 강다니엘, 트와이스 등 K팝 가수들이 직접 만들어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래 레시피는 인스턴트 가루 커피를 사용하지만, 이를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후기들도 많다. 손으로 젓는 게 정석이지만,

전통거품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 일부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매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직접 만들어 먹고 난 외국인들은 "그리스 커피 프라페와 같다", "쿠바·아르헨티나·리비아에서는 늘 마시던 것이다" 등의 반응도 나온다. 사실 한국에서 유행하게 된 그 시각도 배우 정일우가 마카오의 한 식당에 갔다 비슷한 메뉴를 마시면서부터다. 전 세계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커피가 코로나 사태로 '달고나 커피'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셈이다.

스티븐 킹

"전염병 예측한 소설 현실화, 미안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40여년 전 쓴 자신의 소설이 현실화됐다며 사과했다. 킹은 5일(현지 시각) 미국 C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소설 '스탠드'에서 묘사한 전염병 대유행의 예측이 맞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1975~1976년에 이 소설을 썼는데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하고 다닌다"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스티븐 킹의 이야기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답한다"고 했다.

스티븐 킹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스탠드'(1978)는 바이러스 '수퍼독감 캠프 트린스'가 창궐해 인류가 멸망한 이

후의 세계를 그렸다. 바이러스 진원지는 중국이 아닌 미국 네바다주 사막의 생화학무기 연구소다. 정부는 바이러스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독감 유행'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바이러스를 지닌 스파이들을 소련에 침투시킨다.

킹은 당시 유터주에서 발생했던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접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이후 아는 의사에게 소설로 쓰려고 하는데 인구 99%를 절멸할 전염병은 어떤 게 있을까 물었고, 그는 재밌어하며 '독감'을 추천했다"면서 "독감은 매년 다시 변형된 형태로 돌아오고 그때마다 우린 다른 대응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



라고 했다. "우리가 정상 생활로 복귀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 다시 오는 게 제일 두렵다. 약해져서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명적인 변이를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걱정된다."

그는 또한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떠올려야 하는 작가로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다. 스티븐 킹은 "손에 있는 작은 균이 마치 바퀴벌레 커져서 내 손에서부터 팔을 타고 얼굴까지 기어오르는 상상을 하곤 한다"면서 "상상은 때로 끔찍하다"고 했다.

서울 BBQ 레스토랑



짜장면

~~\$10.99~~ **\$7.99**
Regular 시니어(65+) 디스카운트



중화요리
개시!!

*6 or More 그룹으로 방문시
*디너 올유캔잇 주문시
전체 Bill에서 추가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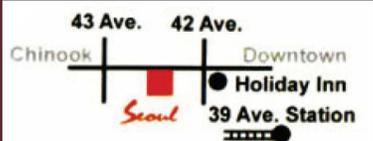
All You Can Eat Shrimps Promotion

(Dinner 올유캔잇 주문시)

2020년 12월말까지 오후 5~6시 사이에 방문 시 디너 올유캔잇 \$34.00 -> 29.89/person happy 아워 가격 적용



Korean BBQ Tel: (403) 243-7970
All You Can Eat
<https://www.instagram.com/seoulbbqcalgary/>



4336 Macleod Trail S.W. Calgary, AB